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헤테로토피아 적용에 대한 메타연구:

여성주의적 적용을 중심으로

— 한희정, 장은미

1. 문제제기

본 연구는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개념을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관심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연구 경향들에서 연구자들의 관심인 여성주의 연구와의 접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개념을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질적 공간’에 대한 관심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동질적 공간과 그 속에 존재하는 보편적 주체의 환상 대신에, 이질적 공간의 존재와 이질적 공간들이 다른 인접한 공간들과 연결되면서 형성하는 이질성의 생산, 그리고 이질적 공간들을 점유하면서 생산되는 주체들에 대한 사유를 제공한다(이상화, 2004). 연구자들은 이러한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개념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현상들을 읽어내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에 주목한다. 특히나 탄핵정국 속 촛불시위의 광장에서 드러난 다양한 목소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고 문제화할 것인가의 고민 속에서 헤테로토피아의 특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속도전’, ‘트위터 페미니즘’으로 얘기되는 현재의 ‘헬페미’ 활동들을 어떻게 담론화하고 의제화할 것인가의 고민도 헤테로토피아 개념에 대한 관심의 한 축이었다. 헤테로토피아적 공간은 한 사회가 ‘일상적인 것’ 혹은 때로는 ‘정상적인 것’으로 규정한 한계의 바깥에 위치하는 무엇인가에 관련되는 공간이며 한 사회의 동질적 기능 작용에 균열을 내는 이질화, 복수화, 다수화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그러므로 헤테로토피아는 한 사회의 정상적 기능 작용에 균열을 내는 이의제기가 작용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으며(허경, 2011), 촛불 시위 광장에서 드러난 이질성, ‘헬페미’의 현장에서 보여지는 다질성은 헤테로토피아와의 연관성을 추론하게 한다.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관심 속에서, 헤테로토피아 개념에 주목해,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개념을 정리하고, 이에 천착한 국내외 관련 문헌들을 검토하면서 헤테로토피아 연구 경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연구자들의 관심인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헤테로토피아와 여성주의적 만남에 주목하여, 흥미로운 주제 및 방법론적 함의가 있는 연구들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연구자들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 헤테로토피아 논의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활발한 논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여성주의적 연구의 외연 또한 확장시키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1)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푸코에게 헤테로토피아는 한마디로 ‘현실에 존재하는 유토피아’이다. 유토피아가 그 자체가 완벽한 사회이거나 사회에 반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비현실적인 공간이다. 이에 반해 헤테로토피아는 모든 문화와 문명, 사회제도 그 자체 안에 디자인되어 있는 현실적, 실질적 장소이며 일종의 반배치이자 실제로 현실화된 유토피아 장소이다. 즉, 지금의 구성된 현실에 조화롭지 않은, ‘정상성’을 벗어나는 공간이 실제 존재하는 경우를 헤테로토피아로 불렀다. 헤테로토피아는 자기 이외의 모든 장소들에 맞서서 어떤 의미로든 그것들을 지우고 중화시키고 정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장소들로서 일종의 반공간(contre-espaces)이다. 예를 들어, 어른들의 헤테로토피아는 자기만의 반공간인, 정원의 깊은 곳, 묘지, 감호소, 사창가, 클럽 메드 같은 휴양지를 들 수 있고 아이들에게는 정원의 깊은 곳, 안락한 다락방, 다락방의 인디언 텐트를 들 수 있다. 푸코는 목요일 오후의 부모의 커다란 침대를 아이들의 헤테로토피아 공간으로 제시한다(Foucault, 2001/2014, 13-14쪽).

푸코는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s)를 연구하는 과학을 헤테로토폴로지(heterotopologies)라 칭하고 다섯 가지의 원리로 설명한다.

첫 번째 원리는 자체적인 헤테로토피아, 또는 헤테로토피아들을 구성하지 않는 사회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원시사회에서 현대까지 모든 인간 집단의 변하지 않는 상수 같은 것이다. 동시에 어떤 형태의 헤테로토피아도 불변인 채로 남아있었던 적은 없다. 이러한 헤테로토피아를 분류해 보면, 우선 생물학적 헤테로토피아, 위기의 헤테로토피아로서 특권화되거나 신성시되거나, 금지된 장소이다. 이러한 장소는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위기’를 겪고 있는 개인들을 위한 것으로서 사춘기 청소년들, 월경중인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집, 출산을 기다리는 여성들을 위한 공간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생물학적 과도기에 있는 개인들을 위한 헤테로토피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19세기 남성의 섹슈얼리티를 처음 드러내는, 다른 장소는 기숙학교, 군대이다. 처녀에게 신혼여행은 일종의 헤테로토피아이다. 처녀가 처녀성을 잃는 사건은 그녀가 태어난 집이 아닌, 어떤 곳도 아닌 곳에서 일어나야 한다. 다음의 유형은 일탈의 헤테로토피아이다. 일탈된 개인들을 위한 장소로서 요양소, 정신병원, 감옥, 양로원(바쁜 현대 사회에서 ‘무위’와 ‘노화’도 일탈임)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원리는 각각의 헤테로토피아는 사회 내부에서 저마다 일정하고 정확한

기능을 가지며 동일한 헤테로토피아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치하는 문화의 공시대(synchronie)에 따라 기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전의 헤테로토피아를 완전히 흡수할 수도, 사라지게 할 수도 있으며 새로운 헤테로토피아를 조직할 수도 있다. 매음굴은 없어졌지만, 거미줄 같은 성매매 네트워크는 여전히 존재한다. 묘지는 우리의 현재적 경험에서 헤테로토피아의 가장 자명한 사례다. 묘지는 18세기까지 도시의 중심, 교회 바로 옆에 있다가 점점 도시 외곽으로 옮겨졌다. 마치 묘지가 전염병의 장소이자 중심이며 어떤 의미로는 죽음을 옮기는 장소이자 중심이기라도 한 것처럼 마을의 외곽으로 밀려나갔다.

세 번째, 헤테로토피아는 보통 서로 양립불가능한 여러 공간을 실제의 한 장소에 겹쳐 놓는데 그 원리가 있다. 헤테로토피아의 하나인 극장은 사각형의 무대 위에 온갖 낮은 장소가 연이어지게 만든다. 영화관의 거대한 장방형의 무대 그 깊숙이 이차원의 공간위에 삼차원의 공간을 새로이 영사한다. 헤테로토피아의 가장 오래된 예는 정원이다. 특히 장방형의 페르시아의 전통 정원은 네 가지 요소, 하늘, 땅, 물, 식물을 표상한다. 네 사각형의 접점에 분수, 사원 같은 신성한 공간이 있다.

네 번째 원리로서 헤테로토피아는 시간의 독특한 분할과 연결된다는 점이다. 즉 그것은 헤테로크로니아(현실에 없는 시간)와 한 계열이다. 우리 사회는 같은 곳에서 무한히 쌓여가는 시간의 헤테로토피아들이 있다. 예를 들어 17세기, 18세기, 박물관과 도서관은 개성적인 기관이자 각자가 지닌 취향의 표현물이다. 반면, 모든 것을 축적한다는 발상, 어떤 의미로는 시간을 정지시킨다는 발상, 시간을 어떤 특권화된 공간에 무한히 누적시킨다는 발상, 어떤 문화에 대한 보편적 아카이브를 구축한다는 발상, 모든 시간, 모든 시대, 모든 형태와 모든 취향을 하나의 장소 안에 가두어놓으려는 의지, 마치 이 공간 자체는 확실히 시간 바깥에 있을 수 있다는 듯 모든 시간의 공간을 구축하려는 발상. 이는 완전히 근대적인 것이다. 영원성의 양식이 아닌, 축제의 양식으로 시간과 연계된 헤테로토피아들이 있다. 즉, 한시적 헤테로토피아로 서커스 극장, 1년에 한 두 번씩 들어차는 이동식 시장 등을 들 수 있다. 이 축제의 헤테로토피아, 한시적 헤테로토피아 가운데는 옛날 매음굴에서의 연회에서 처럼 술판이 있다. 또 다른 헤테로토피아는 축제가 아니라 통과, 변형, 갱생의 노고와 관련된다. 19세기 병영과 기숙학교는 아이를 어른으로, 촌뜨기를 도시인으로, 순진한 사람을 영악한 사람으로 만드는 역할을 담당한다. 오늘날에는 감옥이 그런 역할을 한다.

헤테로토피올로지의 다섯 번째 원리로서 언제나 그것을 주변 환경으로부터 고립시키는 동시에 침투하게 만드는 열림과 닫힘의 체계를 갖는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헤테로토피아에 자유롭게 들어가지는 않는다. 강제로 들어가거나(감옥), 특

정한 의례나 정결의식에 따라 들어간다. 이슬람교도의 터키탕(종교적/위생 목적), 스칸디나비아의 사우나(위생적인 목적의 정결의식만 갖는 경우, 그러나 종교적, 자연주의적 가치도 있음)를 예로 들 수 있다. 외부세계에 닫혀 있지 않고 전면적으로 열려있는 또 다른 헤테로토피아도 있다. 누구라도 거기 들어갈 수 있지만, 일단 들어가고 나면 그것은 환상일 뿐, 어디에도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직감할 수 있다. 열린 장소이지만 당신을 계속 바깥에 놔두는 속성을 가진다. 18세기 남미 가옥의 현관문 옆에 있는 현관문 앞서 있는 작은 방(지나가는 손님을 위한 것)이 그 예이다.

헤테로토피아들은 다른 모든 공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다. 아라공Louis Aragon이 말했던 매음굴처럼 나머지 현실이 환상이라고 고발하는 환상을 만들어냄으로써 아니면 그 반대로 우리 사회가 무질서하고 뒤죽박죽이라고 보일만큼 완벽하고 주도면밀한, 정돈된, 또 다른 현실 공간을 실제로 만들어냄으로써, 이의제기를 한다. 전자의 예는 매음굴을 후자의 예로는 18세기 식민지를 들 수 있다. 그래서 식민지는 어떤 환상을 실현하기에는 어딘가 좀 순진한 (‘보상’에 입각한) 헤테로토피아인 반면, 매음굴을 환상의 힘만으로 현실을 흘뜨리려고 들 만큼 충분히 미묘한 혹은 교활한 (‘상상’에 입각한) 헤테로토피아이다. 한편 자급자족적이고 자기폐쇄적이며 어떤 면에서 자유롭지만 바다의 무한성에 숙명적으로 내맡겨져 있는, 장소 없는 장소이자 떠다니는 공간의 조각인 배는 매우 특출한 헤테로토피아다((Foucault, 2001/2014, 15-26쪽).

한편, 허경은 많은 사람들이 헤테로토피아 개념을 단순히 ‘동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한 사회에서 공간 설립자의 원래 의도와 무관하게 혹은 반하여 한 공간을 이질적인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한 공간이 이질적인 방식으로 기능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한 가지 난점을 불러일으킨다고 보고 있다. 만약 우리가 헤테로토피아를 단지 ‘지배적인 동질적 호모토피아 내부에 존재하는 이질적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때 헤테로토피아는 주어진 지배적 호모토피아에 대해서는 이질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그 자체의 내부에서는 동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또 하나의 작은 호모토피아로 이해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헤테로토피아를 지배적 호모토피아에 대항하는 또 하나의 작은 호모토피아로 이해하는 것으로, 푸코의 일반적 사유경향인 비실체적인 분산 및 차이화의 사유와는 완전히 어긋나는 논의이다. 비록 푸코가 이러한 논의를 스스로 발전시킨 적은 없지만, 이를 해소하는 한 가지 방법은 헤테로토피아의 개념을 ‘거시적인 공간은 미시적 공간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가장 가시적인 효과에 불과하다’는 푸코 자신의 미시적 공간론에 입각하여 적극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일견 잘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지배적 호모토피아 자체를 ‘실상 때로는 잘 기능하고 때로는 잘 기능하지 않는 하나의 헤테로토피아, 곧 다수의 헤테로토피아들이 만들어내는 효과’로 간주하는 것이다. 어떤 호모토피아도 실상 늘 잘 기능하지는 않는다. 호모토피아의 동질성 논리에서 보면 헤테로토피아는 부차적 기능을 수행하는 변방적·부차적 존재이나, 헤테로토피아의 이질성 논리에서 보면 호모토피아는 실제 존재하는 유일한 존재라 할 생성하는 무수한 헤테로토피아들의 배치와 분산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허상,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으나 가장 가시적으로 두드러져 보이는 표면, 변방적·부차적 존재, 곧 허깨비가 된다.

2) 여성주의 연구에서의 헤테로토피아의 적용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개념은 젠더 페미니즘의 한계를 뛰어 넘는 개념을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젠더는 흔히 주어진 생물학적인 성과는 구별하여 성적 정체성이나 규범이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가변적으로 구성되어지는 사회적인 성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그러나 게일 루빈(Gale Rubin)의 ‘성/젠더 체계’ 개념은 생물학적 성이 사회학적 성과 구분될 수 없게 되는 과정을 설명해준다. 즉 여성과 남성이라는 생물학적 범주는 이성애체계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어떤 사회에서 이성애가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그 사회가 성별노동분업체제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성애적 사회체계는 이성애적 욕망으로 다른 성에 대한 의존의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이성애적 욕망과 필요는 사회체계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사회는 다시 그러한 이성애적 욕망을 스스로 충족시킨다. 이러한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경계의 트랜스는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개념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여성이 사회 곳곳에서 젠더적 해방을 위한 균열적 지점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헤테로토피아적 공간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푸코가 언급한 ‘다른’ 공간이기도 하다. 푸코는 이러한 전략을 “공간에 따른 개인의 분할”이라 설명한다. 이러한 권”□ □ □

과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다(Foucault, 1964; 2001/2014, 14쪽).

3. 연구방법과 분석대상

본 연구는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개념이 학술 논문에서 어떤 현상을 해석하는데 사용되는지를 살펴보고 특히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에서의 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각 논문마다 분야도 매우 다르고 인식론적 방법론적 차이가 존재할 수 있지만 한국사회에서 여성주의적 미디어 연구에 어떤 함의를 줄 수 있는지에 보다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자 한다.

1) 국내 논문

국내 논문은 학술정보원(Riss)에서 검색한 1993년부터 2016년까지 헤테로토피아 개념을 적용시킨 논문 총 131편 중 연구자들이 토픽별로 분류하여 선정하였다. 1990년대 초기에는 주로 건축학 분야에서의 공간에 헤테로토피아를 적용했으며 건축학에서의 관심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조희철, 우창훈, 1993; 우창훈, 1997; 김원갑, 1999; 최왕돈, 2000; 고지현, 2007; 정만영, 2008; 임성훈, 2014; 김성환, 이길임, 조승구, 2014). 헤테로토피아 개념의 학술적 관점은 건축학 이외의 분야에서 2006년 이후에 인문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2006년 이후 한국사회에 정착하게 된 도시인문학 담론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오늘날 도시 인문학의 주요 관심 분야는 도시와 공간이다.

인문사회학적 관점에서 헤테로토피아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접근 연구(장세룡, 2009; 신지영, 2009; 이성백, 2010; 김혜승, 2011, 허경, 2011; 2013; 정현이, 2014; 신동의, 차우규, 2015 예술도덕융합교육.. 유승호, 2015; 김말복, 2016; 김경연, 2016; 김영룡, 2016)가 있으며 국내 공간 연구(이상화, 2004; 김정희, 2008; 이준석, 2010; 김준호, 2011; 손희정, 2011; 이안나, 2012; 김소희, 2013; 이준석, 2013) 가운데 특히 전시문화의 이미지 공간성(김소희, 2014), 전시공간(류호열, 공현진, 2016), 지리산 공간(유기쁨, 2016), 헤테로토피아적 장소성으로서의 북한(오인혜, 2015) 연구를 들 수 있다. 그 외 미술 분야 9편, 패션분야, 1편, 무용분야, 2편, 역사연구 2편을 들 수 있다. 또한 인문학 연구자들의 전공에 따라 외국어나 해외문학으로의 관심으로 해외 문학(21편) 및 외국의 공간, 영화, 연극 연구(20편)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학 등 해외 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연구 중 젠더와 미디어를 소재로 한 연구(정병언, 2007; 박선화, 2012; 박정희, 2013; 임정연, 2014; 임안나, 2016)를 분석대상에 포함시켰으며 국내 문학 분야 연구(26편) 가운데, 젠더와 미디어가 소재가 된 연구(박은정, 2012; 유진월, 2012; 조미숙, 2013; 한혜원, 정은혜, 2015), 영화 연구(김필남, 2010; 한혜원, 변성연, 2010; 박현선, 2011; 서재길, 2014; Hong, Eun-sook, 2014; 김영룡, 2015; 강승목, 2015; 정승훈, 2015; 계은경, 2016; 진수미, 2016; 김대근, 2016; 정상준, 2015), TV 포함 여타 미디어 콘텐츠에서의 헤테로토피아성을 논한 연구(김소라, 이병민, 2015; 김태룡, 안승범, 2016; 김소희, 2016), 연극에서의 헤테로토피아 개념을 적용한 연구(김소연, 2015; 이선형, 2014; 김성희, 2016)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분석대상 논문은 총 27편이다.

2) 해외 논문

외국의 분석대상 선정은 헤테로토피아연구 사이트(www.heterotopiastudies.com)의 피터 존슨(Peter Johnson)의 분류에 따라 젠더와 섹슈얼리티 분야(gender, sexuality and queer studies)와 커뮤니케이션 분야(communication, film and media studies)의 연구 목록을 위주로 50여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했다. 우선 젠더와 섹슈얼리티 관련 연구(Sumara & Davis, 1999; Bringham, 2000; Tamboukou, 2000; 2004a; 2004b; Rushbrook, 2002; Wood, 2004; Dove-Viebhan, 2007; Allweil & Kallus, 2008; Persson &

4. 분석 결과: 헤테로토피아 메타연구

- 1) 텍스트 기반 연구 vs 물리적 기반 연구
- 2) 헤테로토피아성에 의한 구분

5. 함의 및 제언

* 4,5장은 당일 현장배포

< 참고문헌 >

- 계운경 (2016). <외박>과 <카트>의 여성노동운동과 공간, <현대영화연구>, 23권, 229-256.
- 김미경 (2014). 만주와 헤테로토피아 ; 상상계와 현상계의 사이: 헤테로토피아로서의 하얼빈. <인문연구>, 70권, 161-206.
- 김대근 (2016). 영화 <서부전선>에 재현된 헤테로토피아. <영화연구>, 68권, 5-31.
- 김소라, 이병민 (2015).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의 장소감 연구: <삼시세끼-정선편>과 <삼시세끼-어촌편>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27권 2호, 42-54.
- 김소희 (2016). 김광석의 음악세계에 새겨지는 끼안는 문화적 분위기로의 환기: 도시인의 숨겨진 내러티브 발견과 감각파장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연구>, 16권 4호, 147-165.
- 김필남 (2009). '부산영화'로 보는 부산 공간의 의미. 로컬리티 인문학, 2권, 185-220.
- 김영룡 (2015). 성스러움의 토폴로지: <거룩한 소녀 마리아>에 나타난 희생과 성현(聖顯)의 내러티브 연구. <독어교육>, 63호, 257-277.
- 김인아 (2015). 헤테로토피아로서의 기카이가지마 섬. <비교문학>, 65권, 59-88.
- 김태룡, 안승범 (2016). 뮤직비디오에 구현된 헤테로토피아의 유형과 그 의미. <씨네포럼>, 23권, 165-188.
- 노상래 (2014) : 만주와 헤테로토피아 ; 헤테로토피아, 제3의 눈으로 읽는 만주 - 현경준의 「유맹」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70권, 1-48.
- 박상현 (2016). 영화 엑스마키나에 나타난 에리히 노이만의 여성성의 원형.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연구>, 57권, 130-139.
- 박현선 (2011).
- 백로라 (2012). 홍상수 영화에 재현된 '서울'의 공간적 의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6, 225-243.
- 백승숙 (2015). 만주, 담론의 불안, 혹은 헤테로토피아: 1940년대 만주 소재 희곡, 유치진의 「흑룡강」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74권, 141-176.

서세림 (2015). 망명자의 정치 감각과 피난의 기억: 최인훈 《서유기》론. <현대소설연구>, 58호, 227-256.

서승미 (2011). 현대 패션에 나타난 Fluid Form의 특성 연구. <복식문화연구>, 19권 4호, 805-819.

서재길 (2014). 나운규 영화와 만주. <인문연구>, 70권, 49-82.

유승호 (2015). 융합문명에 부유하는 헤테로토피아: 김문조의 융합문명론과 융합적 삶. <문화와 사회>, 18권, 55-83.

유진월 (2012). 최초의 여성 극작가 김명순의 희곡 연구: 헤테로토피아적 공간의 창조와 주체형성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26집, 69-98.

이안나 (2013). 모텔 이야기: 신자유주의시대 대학생들의 모텔 활용과 성적 실천의 의미 변화. <여성학연구>, 23권 1호, 41-73.

이양숙 (2015). 재현공간으로서의 서울 미아리 달동네. <인문과학연구>, 46, 29-54.

이진형 (2015). 식민지 시기 여가와 불모의 헤테로토피아: 김남천의 「주말여행」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57호, 225-256.

임정연 (2014). 1950-80년대 여성 여행서사에 나타난 이국 체험과 장소 감수성. <국제어문>, 61집, 47-71.

전문희 (2010). <마더>: 모성의 괴기함과 신성함. <한중인문학연구>, 31, 267-290.

전정옥 (2015). 장소 특정적 연극(site-specific performance)으로서 니콜라이 예브레이노프의 <겨울궁전으로의 진격> 연구. <드라마 연구 (DR)> 47권, 207-250.

정상준 (2015). 디즈니랜드와 헤테로토피아: <다니엘서>, <마법의 왕국>, <공개 화형>. <인문논총>, 72권 1호, 227-262.

정현규 (2016). 접촉의 현상학 -『악마의 묘약』에 나타난 "성 안토니우스의 유혹" 모티브를 중심으로. <독일문학>, 137권, 71-89.

차승기 (2015). 공장=요새, 또는 생산과 죽음의 원천: 흥남과 북명남. <한국문학연구>, 49, 325-355.

최진석 (2014). 근대의 공간, 혹은 공간의 근대. 이진경 엮음 (2014). <문화정치학의 영토들>(204-239), 서울: 그린비.

허경 (2011). 미셸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초기 공간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홍준기 엮음, <현대사상과 도시>, 라움.

허경 (2013). 서구근대도시 형성의 계보학. <도시인문학연구>, 5(2), 7-37.

허경 (2015). '도시인문학'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황해문화, 86, 79-95.

허경(2017). < 푸코의 지식의 고고학 읽기>, 세창미디어.

허경. "헤테로토피아(푸코의)", 도시인문학용어사전.

http://iuuh.uos.ac.kr/bbs/board.php?bo_table=dic&wr_id=84

- Billingham, P. (2001). A Manchester Heterotopia? 'Queer as Folk. in *Sensing the City through Television: Urban Identities in Fictional Drama* (pp. 211-229). Oxford: Portland.
- Blum, R. H. (2010) 'Anxious Latitudes: Heterotopias, Subduction Zones, and the HistoricoSpatial Configurations within Dead Man'. *Critical Studies in Media Communication*. 27(1), 55-66.
- Bury, R. (2005) 'Cyberspace as Virtual Heterotopia' in *Cyberspaces of Their Own: Female Fandoms Online*(166-203). New York: Peter Lang,
- Chung, H. J.(2012) 'Media Heterotopia and Transnational Filmmaking: Mapping Real and Virtual Worlds'. *Cinema*, 51(4), 87-109.
- Davies, A. (2008) 'Guillermo del Toro's Cronos: the Vampire as Embodied Heterotopia', *Quarterly Review of Film and Video*, 25(5): 395-403.
- Dima, V. (2013) 'Women and posters as heterotopias in Ousmane Sembene's Xala', *Journal of African Cinemas*. 5(2), 137-14.
- Dove-Viebhan, A. (2007) 'Embodying Hybridity, (En)gendering Community: Captain Janeway and the Enactment of a Feminist Heterotopia on Star Trek: Voyager'. *Women's Studies*, 36(8), 597-618
- Foucault, M. (1966). Les hétérotopies. in *Le corps utopique suivie de Les hétérotopies* (2009). Nouvelles Editions Lignes. 이상길 역 (2014). 헤테로토피아, 유토피아적인 몸. <헤테로토피아>. 문학과지성사.
- Foucault, M. (1966). *Les Mots et les Choses. Une Archéologie des Sicences Humaines*, Paris: Gallimard. 이규현 역 (2012). <말과 사물>. 민음사.
- Foucault, M. (1975). *Surveiller et punir: Naissance de al prison*. 오생근 역 (2016년 개정판). <감시와 처벌: 감옥의 탄생>. 파주: 나남출판사.
- Foucault, M. (1994). Des autres espaces. in *Dits et Ecrits*, Paris: Gallimard, 이상길 역 (2014). 다른 공간들. <헤테로토피아>. 문학과 지성사.
- Galin, J. R., and Latchaw, J. (1998). 'Heterotopic Spaces Online: A New Paradigm for Academic Scholarship and Publication', *Kairos* 3. abstract.
- Hong, Eun-Sook (2014). A Journey into Heterotopia: Non-linear and Discursive Spaces in the Manchurian Western The Good, the Bad, and the Weird and the Spaghetti Western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헤테로토피아로의 여정 : 만주 웨스턴 <놈놈놈>과 스파게티 웨스턴 <놈놈놈>에 나타난 비선형 산만한 공간). <인문연구>, 70, 139-160.
- Lee, Hyungseob & Ryu, Seunggu (2015). "Sweet Auburn" as Heterotopia: Nostalgia and Protest in Oliver Goldsmith's The Deserted Village Reconsidered (골드스미스의 "황폐한 마을"에 드러난 향수와 저항의 관계에 대한 재고). <한국에

이츠학회>, 46, 167-183.

Lvakhiv, A. (2011) 'Cinema of the Not-Yet: The Utopia Promise of Film as Heterotopia' *Journal for the Study of Religion, Nature, and Culture*, 5(2). 186-209.

Jacobs, K. (2004) 'Pornography in Small Places and Other Spaces', *Cultural Studies*, 18, 67-83.

Knaggs, A. (2011) (Em)placing Prison Break: Heterotopic Televisual space and Place. *Refractory ejournal*, 18.

Loacker, B., & Peters, L. (2015) "'Come on, get happy!': Exploring absurdity and sites of alternate ordering in Twin Peaks', Ephemera. *Theory and Politics in Organisation*. 15(3), 621-649.

Loacker, B., & Peters, L. (2015) "'Come on, get happy!': Exploring